

가정생활구조분석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ment of Family Life Structure Analysis Scale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영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부교수 송혜림
우석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부 가정복지학 전공
조교수 이승미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강사 구혜령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김유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학 전공
부교수 김선미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l University
Professor: Lee, Ki Young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University
Associate Prof.: Dr. oec. Song, Hye Rim

Dept. of Family Welfare, Woosuk University
Assistant Prof.: Lee, Seung Mi

Dept. of Consumer Science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l University
Instructor: Koo, Hye Ryoung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l University
Doctoral Course: Kim, Yoo Kyung

Dept. of Family Welfare, Kwangjoo University
Associate Prof.: Kim, Sun Mi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척도 개발 및 구성 |
| II. 가정생활구조분석 | V. 결론 및 제언 |
| III. 가정생활구조분석을 위한 영역화 | 참고문헌 |

* 본 논문은 2000년도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사)가정생활개선진흥회가 위탁하여 본 연구자들이 수행한 사업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for analyzing family life structure. For this purpose, family life was divided into 8 areas as to be grasped on the whole at first. Next the items to measure both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sides of each area are selected. At last,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 we followed a process of verification.

Diagnosing each family and making its problems and weaknesses clear with this scale will offer a base for developing the service which meets that family's needs.

◆ key word: 가정생활구조, 가정복지, 영역, 분석, 진단

I. 문제제기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양적, 질적 측면에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경제수준의 향상, 학업기간의 연장, 남녀평등을 위한 제반 사회적·제도적 조건, 노동기본권의 확보, 여가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에서는 다양한 양태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에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는 아동학대와 아동결식 및 아동유기, 청소년 범죄와 가출, 청소년 매춘, 가정폭력, 이혼률 증가 외에 무의탁노인, 노인결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정생활의 문제들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약화, 가족간의 갈등 심화, 그리고 물질적 토대의 취약성 등으로부터 야기되는데, 이는 곧 가정이 그 구성원에 대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데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2000). 따라서 가정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시키며 나아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 가정학계가 추진해 온 학문적 지향의 가정복지 관련 연구와 사업 등에 주목하여 가정자원관리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가정복지실천프로그램은 무엇인가에 대한 모색

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관심은 가정복지라는 총체적 개념 하에 가정학의 각 하위연구영역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어떤 방향의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있다. 앞으로 가정복지를 보다 발전시키고 그 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가정학의 제 하위전공영역들이 가정복지라는 개념 하에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송혜림, 2000).

이 때 가정자원관리영역에서는 가정생활설계가 그 대표적인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실제 즉 계획과 실행이라는 체계적 접근법에서의 관리과정에 초점을 두며, 그 결과 분석과 진단, 개선계획 등으로 이어지면서 가정생활설계는 가정생활의 복지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복지와 관련되어 가정자원관리영역에서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주제로 가정생활설계가 거론되어 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참고 임정빈, 1997; 지영숙·이영호, 2000). 지금까지 가정복지와 관련하여 가정학의 각 하위연구영역들의 연구방향과 주제 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가정자원관리연구영역은 보다 세분화된 전문영역의 개발 및 전공분야의 확산과 더불어 기존의 연구결과를 적용, 종합하여 가정생활구조 분석과 진단을 통한 가정생활설계, 가정생활진단을 위한 표준 개발, 가정생활관리론 등 통합적 성격의 연구를 축적하는 것이 중점적 과제라는 점이 제시되어 왔다(구혜령·조영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가정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가정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정생활구조분석에 사용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정생활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가정생활의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축적되고 있으나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제기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실태조사도 가정생활의 하위영역에 국한된 경우가 많으며, 가정생활 전체를 총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작업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생활 중심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생활설계를 위해서는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의 원인을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 및 환경과 관련하여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부 영역만 검토하는 것으로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의 마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정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실상과 문제를 적절한 척도에 근거하여 정확하고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즉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가정생활진단이라는 후속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해당 가정의 문제와 취약점을 평가함으로써 요구되는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생활구조분석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 나타나듯이 가정생활구조분석을 위한 척도 개발연구는 실제 가정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가정생활복지에 기여하며, 나아가서 가정생활 중심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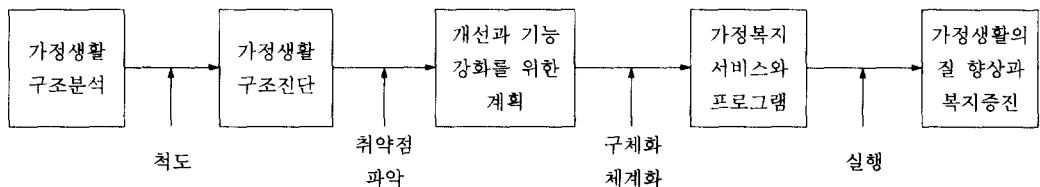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는 가정생활구조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생활을 어떻게 영역화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둘째는 가정생활 영역별로 어떤 내용의 항목을 선정할 후 이를 척도화 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가정생활의 구조를 분석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 있지만,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척도가 필수적이다. 이 척도를 기초로 하여 가정생활 각 영역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진단지표가 마련되고, 개별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가정복지 증진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틀을 구성, 구체적인 가정생활구조분석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실제 가정생활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가정문제의 원인을 평가하는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를 제시할 것이며, 나아가 가정생활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어떠한 내용과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과 현실적인 대안들을 구체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종합적으로 가정생활구조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영역화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정생활 영역별로 가정생활을 파악



<그림 1> 가정생활구조분석과 가정복지

할 수 있는 항목들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척도화 할 수 있는가?

II. 가정생활구조분석

가정경영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은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가정경영은 구성원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욕구충족의 수단이 되는 자원의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즉 가정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한된 자원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배분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가정자원관리과정이다.

따라서 관리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가정생활현상은 그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생활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속에는 한 가정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표준, 자원의 관리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구체적인 관리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v.Schweitzer, 1968). 그리고 이러한 가정생활현상은 가정생활의 영역별 분석을 통하여 가시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영역별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곧 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생활구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목표지향적이고도 책임있는 가정경영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고 나면, 그 자료와 결과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생활구조분석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이것이 가정생활의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실상에 접근함으로써 해당가정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목표지향적 가정경영을 할 수 있도록 상담에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진단계획, 설계 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v.Schweitzer, 1968). 따라서 가정생활구조분석은 가정생활실태파악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며, 목표지향적 가정경영을 위하여 가정생활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v.Schweitzer, 1983).

특히 가정자원관리를 중심으로 한 가정생활설계에서는 현재 가정생활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일정한 틀을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분석으로 보고 있다. 이 때 분석을 위하여서는 가정생활의 각 영역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조사·수집하는 일정한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이기영 외, 1998).

가정생활구조분석은 가정경영에 있어서 수집된 경험과 자료(시간사용, 소득과 지출상태 등)에 힘입어 한 가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공하는데, 이 모습은 가정의 상태를 구체적인 자료(수치 등)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생활영역을 구분하고, 어떤 내용을 조사할 것인가, 이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가 분석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가 수집되어 정리되고 나면, 일정한 척도를 통하여 한 가정의 생활구조가 진단,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개선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구조분석에 있어 관건이 되는 작업은 가정생활의 영역화 및 척도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가정생활구조분석을 위한 영역화

1. 가정생활구조에 대한 이론틀

가정생활은 개별가족원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가족원은 가정생활을 통하여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인격을 형성·개발하며, 나아가서 공동문화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송혜림, 2000). 따라서 가정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이 때 욕구는 가족원의 정서적, 심리적, 물질적 욕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욕구를 포함한다. 그리고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가족원의 유대관계와 정서적 지지 등 인적인 측면에서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동시에 욕구충족의 수단이 되는 인적, 물질적 자원의 관리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생활구조의 분석은 이러한 총체적인 차원에서 인적·물질 체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정생활에 관한 구조적 분석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체계적 접근법이 유용하

다. 왜냐하면 체계적 접근법은 가정생활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인적·물적 하위체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며 이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가정생활이라는 체계를 어떠한 하위체계로 구분하며, 각 하위체계를 구성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하며, 이에 기초하여 가정생활구조분석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동시에 가정생활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생활구조론에서는 가정생활구조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국내 연구자들이 제시한 가정생활설계의 이론틀 그리고 독일에서 실제 가계구조분석을 시도한 가정학자 v.Schweitzer의 가계구조론 등에서 제시한 범주를 종합하고자 한다.

1) 체계적 접근법

가정은 인간의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적, 도구적인 기본단위일 뿐 아니라 인간의 형성과 발달, 그리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기능적인 생활의 장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기능적인 가정생활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체계적 접근법이 유용하다.

체계적 접근법에 의하면 가족의 하위체계는 기능에 따라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Deacon & Firebaugh, 1988)로 구성되는데, 그 구분은 크게 가정의 두 가지 기능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인적 하위체계는 가정의 표현적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서, 개인의 가치관 형성과 정서적·인지적·사회적 발달 뿐 아니라 가족간의 관계나 역할, 그리고 가족문화 및 가치관을 통해서 나타난다. 한편 도구적 기능에 근거한 관리적 하위체계는 가족의 목표를 명료화하고 자원을 사용하여 가족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시간이나 공간, 화폐와 같은 자원의 관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은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받고 조건화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독일의 가정학자 v.Schweitzer 역시

가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면서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점으로 가정생활에 접근하고 있다. 이 때 인적 하위체계는 가정구성원을 중심으로 어떤 목표와 가치를 가지며, 생활의 지향성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이 때 구성원의 공동목표는 요구로 표현되므로, 결국 인적 체계는 한 가정이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나타내는 하위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관리적 하위체계는 인적 하위체계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 행동과정에 해당된다. 관리적 하위체계는 자원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실행가능한 형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v.Schweitzer, 1983).

이상에서와 같이 체계적 접근법을 고려하여 가정생활의 영역을 구분하면, 인적 하위체계에는 인적자원의 개발, 생활철학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관리적 하위체계에는 가사노동분담, 의사소통, 의사결정, 가정관리의 계획성, 가계관리과정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생활구조론

생활구조론은 생활을 인간관계, 생활시간, 생활공간, 생활수단, 경제, 생활환경, 생활의식 등의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통일적으로 인식하고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생활구조론은, 인간이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생활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행위가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범주 내에서, 그리고 물적 수단과 금전에 의해 조건화되어 역할관계와 행동의 기준을 만들면서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생활을 밖으로부터 제한하는 외적 조건이며, 물적 수단과 금전은 생활의 전개를 촉진하는 매개적 조건이며, 역할과 의식은 생활을 안으로부터 쌓아가는 내적 조건인 것이다. 또한 생활구조는 생활환경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고 구조화되어 특정한 생활패턴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이나 역할의 변화에 따라서도 다양한 패턴

을 보인다(모수미 외, 1994).

생활구조론은 생활의 대부분이 가정을 중심으로 영위된다는 점에서 가정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접근은 가정생활의 기능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앞서의 6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가정생활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면 시간, 공간, 수단, 금전, 역할, 규범의 구조적 요인으로 구별되며, 각각의 구조는 생활행동의 측면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보여준다(모수미 외, 1994).

한편 생활구조론은 가치와 행동, 지식, 조건 등의 개념을 구별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적 인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때 가치 세계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의 가치활동을 의미하며, 가치관의 실제적인 반영인 행동양식을 지칭하는 행동세계, 그리고 생활목표의 달성과 유효한 수단선택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정보와 기술인 지식 세계, 마지막으로 생활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 환경과 여건을 지칭하는 것이 조건세계이다(정서린, 2000). 이와 같은 생활구조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정생활의 주체가 되는 주부의 개인적 가치관, 행동양식, 지식정도 뿐 아니라 가정생활의 운영방식, 특히 가정관리의 계획성 역시 가정생활의 기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3) 가정생활설계론

분석과 진단, 계획의 세 단계로 가정생활설계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v.Schweitzer는 가정생활설계에서 분석과 진단을 위한 범위를 전반적인 가정구조상태, 인적 체계, 노동기능적 체계, 금전관리체계로 영역화하고 있다(v.Schweitzer, 1983). 그리고 이 기본적인 영역으로부터 가사노동, 생활시간사용, 재무관리, 주거상태, 지역사회환경 등의 보다 구체화된 세부영역이 도출된다.

현재 가정자원관리학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가정생활설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사분석, 진단, 계획, 실행, 통제라는 단계별 적용을 모색하여 왔다(이기영 외, 1998). 여기에서는 주거공간, 생활시간, 가사노동, 재무 등의 영역에 대한 설계와 이러한 내용들이 기초하고 있는 전반적인 가정상태에 대한 설계

등이 그 주된 내용이 되고 있다.

2. 가정생활구조분석을 위한 구성영역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구조분석을 위하여 가정생활구조론의 6가지 영역, 체계적 접근법의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의 내용 그리고 가정생활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개념적 틀에 근거하여 가정생활을 생활철학, 인적자원의 능력과 개발, 생활시간의 균형, 생활공간의 적합성, 물적 자원의 적합성, 가계경제의 안정도, 가정관리의 촉진, 전반적인 가정관리의 계획성 등 8가지 영역으로 구조화하였다.

1) 생활철학

가정생활의 운영주체인 가족원의 가치관, 생활규범 및 생활태도 등은 가정생활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뿐 아니라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이나 자연환경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체계적 접근법에서 제시한 바, 인적 하위체계에서 한 가정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와 방향성은 이 생활철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가정경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가치관이나 생활규범, 생활태도 등은 가정생활을 통해 자녀에게 학습되고 전수되는데, 이와 같은 자녀의 사회화는 가정생활의 가장 근원적인 기능으로서 개별가정의 생활규범이나 태도가 어떠한가의 문제 역시 가정생활구조분석의 중요한 영역을 구성한다.

2) 인적 자원의 능력과 개발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가정생활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생활주체자, 즉 가정관리자의 능력과 이를 위한 개발이다. 가정관리자의 능력은 체계적 접근법에서 볼 때, 가족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인적 자원은 가정생활의 운영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운영주체인 가정관리자의 능력과 이를 위한 개발이 어떠한가 하는 실태는 가정생활구조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3) 생활시간의 균형

가정을 재생산의 단위로 파악할 때, 가족원의 생활시간은 노동력재생산과 노동력소비의 시간으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서 노동력 소비시간은 가정생활의 물적 수단과 금전자원의 획득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력재생산시간은 육체적, 정신적 재생산시간인 생리적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과 재생산을 위한 조건 마련의 가사노동시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가족원 각 개인 뿐 아니라 가족단위로 볼 때, 생활시간 영역별로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시간 사용과 분배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균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4) 생활공간의 적합성

생활공간은 생활시간과 함께 가정생활을 규정하는 외적 조건으로서, 가족원의 일상적인 삶이 펼쳐지는 물리적 조건이다. 생활공간은 가정생활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주거공간의 넓이, 구조, 설비 등의 영역과 가정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생활공간의 적합성은 가정생활운영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가족원이 살기에 적합한 생활공간인가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5) 물적 자원의 적합성

물적 자원은 가정생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구적 수단이며, 가정생활을 전개하는데 매개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생활용품의 상품화, 기계화로 인해 소비재에 대한 가정생활의 의존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 자원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생활에 요구되는 재화인 소비재의 적합성, 즉 편리성과 능률성, 그리고 활용도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은 그 적합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필요하다.

6) 가계경제의 안정도

물적 자원과 함께 금전자원은 가정생활의 물적 기

반이 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가계의 물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계의 금전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축적되는가, 즉 자산과 부채간의 균형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함께 소득을 토대로 실제 생활영역에 어떻게 지출되는가의 문제는 가정생활의 양적 수준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정생활의 모습을 드러내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7) 가정관리의 촉진 - 역할분담과 의사소통, 의사결정

앞서의 물적 수단과 금전자원이 가정생활의 도구적 기능을 위한 수단이고 매개적 조건이라면, 개별 가족원들은 가정생활을 통해 가족원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상호간에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가족원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가정생활을 운영하는 것이 가정생활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또한 역할분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정경영과정에서 가족원들의 의사소통과정 및 의사결정유형 등은 가정관리를 촉진시키는 수단이 되므로,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진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8) 전반적인 가정관리의 계획성

가정생활의 운영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 자체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새로운 상황과 조건의 변화, 또는 환경적 조건의 변화에 적응하는 관리적 역동성을 지닌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운영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운영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IV. 척도 개발 및 구성

1. 척도의 개발과 정교화

가정생활구조분석을 위하여 위에서 제시된 8가지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에 해당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항목을 개발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구성된 척도를 보다 정교화하기 위하여 개별가정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개별가정의 가정 관리의 대표자인 주부, 즉 기혼여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지역은 서울로 한정하였다. 또한 가족생활주기,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개별가정의 상황적 차이를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특정 주기의 전업주부가정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척도를 정교화하는 것이 상황적 차이에 따른 척도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 필요할 뿐 아니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가족생활주기 중 자녀교육기에 해당하는 전업주부가정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전업주부의 학력을 고려하여 30가정을 대상으로 훈련된 면접원에 의해 2000년 11월 한달 동안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정교화된 8가지 영역의 구체적인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진단척도의 내용

1) 생활철학

가정생활 및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가정생활운영의 주체들이 어떠한 생활철학을 갖고 있는가하는 것은 사적인 가정생활의 대(對)사회적 책임, 가족과 국가·사회의 관계,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주체적인 가정복지의 실천단위로서의 가정생활이 자율성을 확보하며 재생산활동의 중심지로서 균형을 취할 수 있으려면 가정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이 보다 부각되어야 하며, 가정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주체가 될 수 있는 토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활철학영역은 환경보호의식, 편의주의의 가치관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문숙재·김혜연, 1987; 민현선·이기춘, 1996; 서울대 시민교육 연구실, 1995; 엄하정, 1993; 임정빈·임혜경, 1988; 현금희, 1990; R.v.Schwetizer, 1988)를 참고하여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척도의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환경보호의식 : 친환경적 가정경영행동, 재생용품사용, 분리수거, 자녀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편의주의의 가치관 : 간편함과 시간절약을 위한 편리함, 편의주의적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공동체의식 :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 생활환경 정보, 투표/반상회 참가, 이웃주민과의 교류, 가정과 국가사회의 관계, 촌지, 과소비 등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인적자원의 능력과 개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가정의 자원에는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다. 이 중에서 인적자원은 개인에게 속하는 지식, 태도, 능력, 인지능력과 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과는 관계없이 각 개인에게 속하는 개인적 자원과 협동, 사랑, 충성, 커뮤니케이션과 같이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대인적 자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자원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능숙하지 못한 관리자라면 차칫 간과할 수 있고, 따라서 세심하게 개발·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인적자원 척도는 가족원의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정신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Deacon & Firebaugh(1988), Gross, Crandall, & Knoll(1980), Rice & Tucker(1986), 濵田幸子(1991)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1) 사회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는 책임감(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하는가), 신뢰성(약속을 잘 지키는가), 적응성(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가), 협동성(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동하는가), 자발성(가족원이나 타인에게 스스로 도움이나 조언을 주는가), 침착성(사회적인 장소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표현력(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관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신체적 특성

신체적 특성으로는 차림새(때와 장소에 맞추어 의복을 입을 수 있는가), 건강(위생관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가)에 관한 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3) 정신적 특성

정신적 특성으로는 총명성(문제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열의(자신이 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는가), 인간성의 이해(가족원의 개인차와 능력, 개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가), 독창성(가정경영에 대한 독창성), 판단력(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을 묻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생활시간의 균형성

생활시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을 어떻게 구분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시간조사(1985, 1990, 1995)는 조사의 주요 초점이 방송시간대 편성을 위한 TV 시청시간에 있고 또한 개인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송공사에서 사용된 시간의 분류 기준은 가족을 단위로 한 생활시간의 분석에는 유용하지 않은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반해 기존의 가정학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재생산단위로 파악하여 생활시간을 크게 노동력소비와 재생산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력소비시간이란 곧 수입노동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력 재생산시간은 다시 육체적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생리적 시간, 정신적 재생산을 위한 사회문화적 시간, 노동력재생산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가사노동시간으로 구분되며, 가사노동시간은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의 노동시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구분된 생활시간은 다시 영역별 세부활동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숙재, 1996; 이기영 외, 1994; 이승미, 1997; 조희금, 1993).

(1) 생리적 시간 : 수면, 식사, 신변잡일(몸치장, 용변, 목욕, 화장 등), 휴식

(2) 수입노동시간 : 근무, 통근

(3) 가사노동시간 :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관련 집안일, 자녀돌보기, 가족원돌보기, 구매 및 가계관리

(4) 사회문화적 시간 : TV시청, 신문이나 독서, 취미·오락활동, 가족단란, 강습·수강, 운동, 모임이나 교제, 사회적 활동, 종교활동

이상과 같은 세부활동에 주부와 남편 각각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가의 객관적인

평균 시간량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세부활동별 시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적당한지, 줄이거나 늘려야하는지), 시간부족을 느끼는 활동, 자신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감에 관한 주관적 평가항목을 포함하였다. 또한 가족이 어느 정도 시간을 함께 하며, 어떤 활동을 함께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의 공유시간과 공유활동에 관한 문항, 가족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활동에 관한 문항을 척도로 구성하였다.

4) 생활공간의 적합성

생활공간의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크게 주택 관련 척도와 주거환경 관련 척도의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주택 관련 척도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척도를 참고로 주택 면적, 방의 개수, 부엌·화장실·목욕탕·목욕시설 등의 주거시설을 측정하는 항목을 넣음으로써 가족특성(가족수, 자녀수, 성 및 연령)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최저 및 유도주거기준(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1999; 서울특별시, 1997) 충족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부산발전연구원(1996) 연구와 堀田剛吉·杉原利治(1988)를 참고하여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였다.

주거환경 측정을 위한 척도는 부산발전연구원(1996)의 연구와 堀田剛吉 외(1988)의 주생활진단표를 참고로 하여 보건 및 위생환경만족도, 교통환경만족도, 교육환경만족도, 여가문화만족도, 공공시설만족도 관련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관련 영역

주택의 형태, 규모, 구조, 난방형태, 소음의 유무, 일조 조건, 통풍 조건, 가사 작업의 능률성(부엌, 세탁장 등), 수납공간의 충분 정도가 항목이 선정되었다.

(2) 주거환경영역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의 정비상황, 재래시장·근린상가·백화점 이용의 편리성, 노약자시설·어린이 놀이환경의 정비상황, 출퇴근의 용이성, 대중교통 이용의 용이성, 주변도로 혼잡도, 공원·유원지 이용의 편리성, 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용의 편리성, 학군, 자녀통학 편리성, 교육환경 저해요인 유

무(유흥가, 리브호텔 등), 놀이방·유치원 보육시설의 정비상황,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평가 항목이 포함되었다.

특히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주관적 평가(매우 좋다, 대체로 좋다, 별로 좋지 않다, 나쁘다로 평가)와 더불어 우체국, 동사무소, 병원, 시장, 극장, 공원, 학교의 거리를 기입하게 함으로써,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후 개별가정 진단시의 평가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로써 이용하고자 하였다.

5) 물적 자원의 적합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필요한 물적 자원은 구매 후 즉각적으로 소비되는 소비재를 제외한, 일정기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내구재가 해당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되는 내구재의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가전제품의 보급률과 가정기기 보유현황,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김기옥, 1997; 김성희, 1996; 유두련 외, 1997; 이정우, 1992; 정영금, 1993)를 토대로 보급률이 90% 이상이 되는 기본적인 가사용 내구재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내구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항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가족원의 여가활용에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내구재도 선정하였다.

(1) 가사용 내구재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청소기, 김치냉장고, 믹서나 주서, 토스트기, 전자레인지, 정수기, 재봉틀

(2) 여가나 교통수단, 주생활관련 내구재

TV, 비디오, 오디오, 캠코더, 컴퓨터, 에어컨, 자동차 각각의 내구재의 보유여부, 내구재의 활용도, 교체희망여부를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정용 내구재에 대한 주관적 평가항목을 포함하였다.

6) 가계경제의 안정도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소득과 지출 혹은 소비지출구조나 가계의 순자산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측정과 그 결과의 상호비교가 용이한 반면 자

산보유 구조를 파악할 수 없어 대부분의 자산을 고정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 가계 내의 유동성이 극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 우리 나라 가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의 재정변수를 조합한 재무비율이다.

재무비율은 재무상담과 계획 시에 진단과 정보의 도구가 되며, 재정상태의 분석과 논의의 시발점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재정적 능력의 평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 구성된 객관적 척도로서 각 가계의 재정상태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최윤지 & 최현자, 1998; DeVaney, 1993).

본 연구에서는 가계 경제의 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소득과 지출, 부채와 자산의 상태를 비목별로 측정하여 각각의 균형상태를 검토하고, 나아가 두 가지 이상의 재정변수 간의 상대적 비율 분석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1) 소득 : 월평균 소득을 의미한다.

(2) 지출 : 보편적인 지출비목의 구성을 다소 수정하여 외식비나 사교육비와 같이 별도로 보는 것이 중요하거나 또는 양육비, 개인 치장비와 같이 크게 묶을 경우 빠질 수 있는 항목을 따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출, 부채, 자산의 경우 자가 측정 및 진단시에 용이하도록 세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예들을 자세히 기입해 주었다. 이와 같이 소득, 지출, 부채, 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더불어, 각 가계의 담당자가 이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각 변수별로 포함하였다.

7) 가정관리의 촉진

가정관리의 촉진을 위한 관리과정의 요소로 가사노동분담, 의사소통, 의사결정을 고려하였다. 각 영역의 척도는 선행연구(고효정, 1996; 김수연·김득성, 1997; 김오남·김경신, 1994; 박정희, 1998; 민하영, 1992; 어은주·유영주, 1995; 이정우·이정숙, 1992; 최연실, 1996)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의 원활성

의사소통의 원활성 척도는 가족원의 의사소통 참여정도, 규칙적인 대화시간의 여부, 가족원간의 대화정도,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의사결정의 주체와 공평성

의사결정의 주체는 금전관리, 자녀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체, 전반적인 가정관리와 관련하여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의사결정의 공평성척도는 의사결정 시 가족원이나 부부가 함께 의논하는 정도,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자녀나 부부의 만족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가사노동분담

가사노동 분담 척도는 가사노동의 영역별로 가족원들이 분담하는 정도와 그에 대한 만족도, 집안일에 대한 책임공유 정도, 가사노동분담방식에 대한 만족, 하기 싫은 일을 가족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8) 전반적인 가정관리의 계획성

가정관리란 가족원의 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의 자원 사용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를 포함하는 과정이다. 같은 자원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가족이라도 가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서로 다른 자원을 갖고 있는 가족이라도 가정관리를 통해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정관리자의 계획자로서의 자질이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관리과정 중 계획성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흔히 계획이라고 하면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 과정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계획 뿐 아니라 정보탐색, 점검, 조정, 평가의 과정을 전반적인 가정관리의 계획성에 포함시켰다. 이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것 못지 않게 상황에 맞추어 계획을 조정하는 일, 계획을 평가하는 일 등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가정관리의 계획성 척도는 관련연구(김의숙 외, 1997; 안수미, 1998; 홍향숙, 1999; 濵田幸子, 1991)들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1) 계획 : 일의 순서나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2) 정보탐색 : 주위의 친지나 이웃, 혹은 여러 매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조언을 구하기

(3) 점검 :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는가를 점검하기

(4) 조정 :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기

(5) 평가 : 어떤 일이 끝나고 난 후, 자신의 계획이 적합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 척도는 일반적인 가정관리의 계획성에 대한 문항 뿐 아니라, 손님초대라는 평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재무관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물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가정관리의 계획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일차적으로 작성된 척도를 가지고 문항 응답상의 문제나 오류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자 각각이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탐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문항들을 수정하고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가정복지로의 통합을 위하여 가정자원관리연구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구조분석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며 이를 토대로 가정생활구조 진단과 개선계획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가정생활설계과정을 체계화, 구체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가정생활을 생활철학, 인적 자원의 능력과 개발, 생활시간의 균형, 생활공간의 적합성, 물적 자원의 적합성, 가계경제의 안정도, 가정관리의 촉진, 전반적인 가정관리의 계획성 등 8가지 영역으로 구조화하였으며, 각 영역에 어떤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여 항목을 선정함으로써 가정생활구조분석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가정생활구조분석을 위한 척도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척도를 적용하여 자신의 가정생활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른 가정과 비교하여 나의 가정생활 중 어떤 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기존의 가정복지서비스는 가정의 기능이 일부 상실된 사후 문제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지만, 척도를 통해 가정생활을 분석하고 진단의 기준치를 적용하여 취약점과 개선점을 알게 되면, 일반 가정도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정생활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지역단위의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해당지역 가정을 대상으로 진단척도를 적용함으로써 그 지역 가정의 전반적인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자료는 지역단위의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파악,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가정복지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때, 개별가정을 대상으로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진단된 내용을 토대로 보다 전문적인 가정복지관련 서비스기관이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성 있는 진단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수의 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생활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예를 들어 가족생활주기, 자녀유무, 주부의 취업여부 등)을 고려하여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치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전국적인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간소화된 자가진단척도를 개발하여 그것을 기초로 누구나 쉽게 자신의 가정생활을 분석하

고 어떤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연구자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일반 가정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기 가정의 실태와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1999). 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고효정(1996). 부모와 청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과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욱(1997). 우리나라 소비자가 추구하는 생활표준 : 질적 접근법을 이용한 소비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5-32.
- 김성희(1996). 가정기기 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 - 현대과학기술에 의해 생산된 가정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연·김득성(1997).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에 관한 연구 II. 대한가정학회지 35(6), 205-219.
- 김오남·김경신(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 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5-120.
-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7). 가정관리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모수미·최정화·이기영·김외숙(1994). 가정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 문숙재·김혜연(1987).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5(2), 89-107.
- 민하영(1992). 청소년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현선·이기춘(1996).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과 환경규제방안에 대한 지지도. 대한가정학회지 34(3), 107-121.
- 박정희(1998). 한국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07-122.
- 부산발전연구원(1996). 부산시 주거수준에 관한 조사

- 연구.
- 서울대 시민교육 연구실(1995). 공동체 시민의식 현황과 확산경로.
- 서울특별시(1997).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 연구.
- 송혜림(2000).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관점의 적용과 가정복지의 방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31-41.
- 안수미(1998). 자산관리과정과 부부의 역할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세정(1998).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 *대한가정학회지* 36(1), 169-186.
- 어은주 ·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엄하정(1993). 환경오염감소와 관련된 주부의 관리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두련 · 정경옥 · 심미영(1997). 가계의 환경의식적 소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401-415.
- 이기영 · 김의숙 · 서창원 · 이승미(1994).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이기영 · 조영희 · 송혜림 · 이승미(1998). *생활설계론*. 교문사.
- 이승미(1997). 가족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우(1992). 가정기구관리론. 수학사.
- _____ · 이정숙(1992). 가족내 의사소통과 관리행동 : 부산시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3), 241-256.
- 임정빈 · 임혜경(1988). 도시주부의 라이프 스타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223-249.
- 정서린(2000). 정보화가 가정생활 구조에 미친 영향-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금(1993). 가정노동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75-88.
-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01-112.
- 최연실(1996). 가족 적응력 · 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1-145.
- 최윤지 · 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 · 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2000). 가정가능 강화를 위한 가정생활 진단프로그램 개발. (사)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연구보고서.
- 한국방송공사(1996). 1995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 현금희(1990).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일치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향숙(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덕순(1998). 가계의 재정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2.
- Deacon, Ruth, E. & Francille M. Firebaugh(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 : Allyn & Bacon Inc.
- DeVaney, S.(1993).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s as predictors of household insolvency : Two perspectiv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5-24.
- Gross, Irma, Elizabeth, W. Crandall, & Marjorie, M. Knoll.(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Ea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Inc.
- R.v.Schwetizer(1983). *Haushaltsführung*. Ulmerverlag.
- R.v.Schwetizer(1968). *Einführung in die Haushaltsanalyse*. Frankfurt : MEWES-DRUCK.
- Rice, Ann, Smith & Tucker, Suzanne, M.(1986).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堀田剛吉(하츠다 다케요시) · 杉原利治(스키하라 도시하루)(1988). *生活設計と家庭科教育*. 東京 : 家庭教育社.
- 瀬田幸子(아사나 사치코)(1991). *生活設計教育論*. 明文書房.